



문전성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28일 오후 담양 죽녹원 일대에서 열린 제21회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남도음식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수요 재조사해보니

공사비 2천억·하루 수요 7만명 부풀렸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재검토 지시로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 수요 예측조사에서 애초 우려했던 대로 교통 수요와 공사비용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선과 건설방식 재조정 등을 통해 전체 공사비용의 최대 10%인 2000억원 안팎의 건설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기존 1호선의 예상 적자와 시내 버스 증차 비용 등의 적자폭이 비슷할 것으로 분석돼 예산 절감을 전제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조만간 시민과 시의회 등의 의견을 모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와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수요 추정치 부풀리기 사실상 = 지난 26일 열린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검토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발표된 교통수요 재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2호선 완공시점인 2025년 기준으로 1, 2호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24만7769명으로 나타났다.

◇예산 추정치 31만9752명보다 7만1983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추정치의 77% 수준으로, 교통분담률도 12.07%에서 10.30%로 1.77%포인트나 낮아졌다. 1호선 이용객은 9만489명에서 7만6835명으로 15%, 2호선은 22만9263명에서 17만934명으로 25% 정도 줄었다.

윤장현 시장이 당선 직후부터 주장해 온 도시철도 수요 예측 부풀리기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도시철도 건설 시 자연적인 유발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1호선 자연 증가분 1일 2만4529명을 더해 27만2298명으로, 애초 추정치의 85%수준에 불과했다.

버스 확충 年 적자 750억 비슷...예산절감 추진 유력

◇1·2호선 적자액, 버스 증차 적자액 비슷 = 광주시는 이날 2호선 미건설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버스 증차를 제시했다. 시내버스 430대 증차와 함께 시내 및 마을버스 위주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버스증차에 따른 비용은 연간 215억이며, 1호선 예상적자 500억원 등을 합하면 총 적자는 715억원이다. 이는 2호선 건설에 따른 연간 예상적자 750억원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적자에 절감을 위한 도시철도 2호선 반대 여론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여기에 도심구간 확장에 따른 건설비용,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 비용 등 사회적 간접비용만 따져도 무려 1조54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도로유출 10% 향상 비용인 2조6000억원(1% 증대 시 2600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비용의 두배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타당성 검토 TF 회의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에서도 상당수 위원이 건설 찬성 입장으로 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비용도 10% 안팎 줄일 수 있어 = 광주시는 도로여건이 양호한 구간(8차)을 지하방식에서 노면(지상)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전체 공사비 1조9053억원 중 최소 1555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첨단지구 노선 3.1km를 지상구간으로 전환해 587억원을 절감하고, 수완지구도 4.6km를 지상구간으로 바꾸면 968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예산 절감을 통해 최대 공사 비용의 10%까지 절감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2호선 노선으로 포함된 백운광장에서 조선대까지 2.3km의 '푸른길' 구간 중 77%에 해당하는 1.77km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되레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예산절감은 숙제다.

광주시 내부에서는 이미 2호선 건설을 하되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찾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과 시의회 의견 듣고 최종 결정 =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와 건설방식은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을 시민과 시의회에 알린 뒤의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남도음식문화큰잔치 30만명 성황

담양서 첫 개최...전시음식 시식 판매 코너 등 인기

지난 26일부터 3일간 담양 죽녹원에서 열린 제21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30만여 명의 관광객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20년만에 축제 장소를 변경하면서 관광객들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는 등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전시 콘텐츠가 대폭 보강된 남도음식 전시관은 주제관, 명인관, 시군관 외에 세계관을 추가해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남도음식 개발의 계기도 마련했다.

특히 전시음식에 대한 조리법을 담은 소책자와 전시음식 시식 판매 코너는 일반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전시관에 전시된 음식을 대나무 창가에 담아 2000원씩 판매하는데 판매 시작 30분만에 준비한 음식이 동나는 등 관광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음식경연대회에서는 일반부 19개 팀, 고등부 11개 팀, 대학부 15개 팀이 참가해 일

반부 대상은 장흥군 김정숙, 손수자 씨가 차지했고, 시·군 전시음식 부문에서는 장성군 김병화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처음 도입돼 특색 있게 꾸며진 관광객들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는 등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전시 콘텐츠가 대폭 보강된 남도음식 전시관은 주제관, 명인관, 시군관 외에 세계관을 추가해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남도음식 개발의 계기도 마련했다.

또 4인 기준 1상에 20만원의 비싼 가격에도 83명의 예약 손님이 몰린 임금님 수라상 체험과 일찌감치 200명이 참가 신청을 한 단체정식 체험은 음식축제의 산업화 가능성을 내보인 좋은 사례가 됐다.

KTX와 수도권 여행사를 통해 축제장을 찾은 20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음식 만들기에 참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암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2곳 3만4천마리 살처분

지난 24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광주일보 25일자 1면>가 접수됐던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형)인 것으로 판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해당 농가 오리 1만1000마리와 위험지역인 반경 500m 내에 있던 오리농가 한 곳 2만3000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의 오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곳에서도 AI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유행했던 AI 바이러스가 잠복해있다가 가을이

되면서 다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원인은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AI 확진 판정으로 인해 AI가 계절을 불문하고 지역에 토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사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남도는 자체분석 결과 올해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전남이 H5N8형에 감수성이 높은 오리 사육 주산지(전국 56%)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리축사 시설 대부분이 열악한 비닐하우스 형태인데다 장기간 방역으로 인한 농가 자율방역의식이 소홀했던 것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의 새 미래는 곤충산업”

이낙연 지사 곡성서 간담회

전남도가 곤충을 주제로 한 애안·사료·의약·식품·행사 등으로 분야를 나눠 산업화에 나선다. 곤충시장 규모가 오는 2020년에 7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27일 곡성 소재 한국유용곤충연구소를 찾아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전남 미래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곤충을 농촌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유근기 곡성군수, 양영철

(주)한국유용곤충연구소장, 이정남 전남 곤충산업협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곤충농가들은 “곤충은 단백질이 풍부해 중국, 남미 등에서는 식량으로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식량자원으로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전남도가 앞서는 곤충시장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전남의 곤충 사육 농가는 57호로 전국(348호)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곤충 시장 규모는 지난 2009년 1570억원에서, 2015년 2980억원, 2020년 7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동문대로[두암동]랜드마크 주선메디컬센터 임대

말바우시장 핵심상권

- 위치 : 두암동 말바우 시장 은병원 옆
-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 준공 : 2014년 12월 초

상담
진 공인중개사 010-6205-602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안내

연구개발에서 제품생산까지, 생산기술혁신형 창업보육시스템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술주도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드립니다.

- 입 주 자 격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기업
- 모 집 분 야 부품소재, 광에너지, 나노기술, 금형기술
- 접 수 기 간 연중 수시 모집(2014년 10월 21일, 1차 마감)
- 입 주 절 차 입주신청서 접수(10. 21.) → 창업보육위원회 심의(사업타당성평가) (10. 28.) →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계약 (11. 01.)
- 입 주 기 간 최초 2년(1년 단위 최장 3회 연장 가능)
- 신 청 방 법 홈페이지 (www.gjk.re.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접수는 E-mail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및 접 수 처 TEL : 062)600-6423, jws1003@kitech.re.kr 500-48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창업보육센터

KITECH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시험생산(tryout)센터